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계 7:9)

FAITH BY
HEARING



ARM

Audio Recordings Mission

GOSPEL RECORDINGS KOREA

복 음 음 반 선 교 회

ARM은 Gospel Recordings, LRI와 연합하여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의 부족어로 된 음반을 만들어 복음을 전파합니다.

도종족 음반사역

효과적인 카세트 테이프는
도구 글과 성경이 없는
말하는 부족을 위해
전도지

제 5 호

1996년 12월

-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 인터넷을 통한 선교사역
- 야생마 선교사 앤
-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 반가우면 침뱉는 종족
- 호두껍질이 깨어지다.
- 중국에서 온 편지
- 네팔 현장녹음 훈련학교

- 발행처 /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송파구 오금동 94-3 성진 B/D
Tel 408-6959 Fax 430-4353
home page - <http://kcm.co.kr/arm>
- 발행인 / 조 관 호(Barnabas:K.H.Cho)
- 편집인 / 정 성 준(David:S.J.Jung)
- 정기간행물등록 / 1996.2.21 등록번호 마2540
- 제 작 / 은혜문화(443-9305)



WHY SO LONG?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조이 리더호프
Gospel Recordings
설립자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 감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의기소침한 얼굴에
언짢은 표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입술의 말이 승리의 원천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햇볕이나 비, 물,
공기와 같이 일상의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크나큰 희생을 치르신
분, 그 이름이 사랑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지시 않겠습니까?

이곳 생활의 모든 빈약한 것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잘한 아픔과 절망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살피시고 그토록 돌보시니
모든 부족함이 감사가 됩니다.
내 모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상적인 야심이 무너짐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가난과 고통, 사라진 꿈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 되어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버리고, 잘못된 인생 삶을 살았을 때,
갈보리에 달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많은 감사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가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범사에 기뻐하십시오. **ARM**

홈 페이지



한국 ARM

<<http://kcm.co.kr/arm>> - 한/영

국제 GRN

<<http://users.aol.com/glorenet>> -

ARM(복음음반선교회)의 정보와 소식이 인터넷(World Wide Web)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웹(Web)은 인터넷의 한 분야로 전화선과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다. 수백만의 가정, 사무실, 도서관, 학교에서 전세계로 연결된 이 거미망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일반적인 온라인 서버를 사용하여 ARM의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ARM이 한국 컴퓨터 선교회(Korea Computer Mission)의 협력으로 개설한 홈 페이지는 효과적인 미전도 종족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나 앞으로 제공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격월간 발행되는 ARM 회보의 현재, 과거의 내용
- ARM 회보에는 실리기 어려운 소식이나 기사
- ARM에서 제작, 보급하는 비디오 • 오디오 자료, 출판물
- 일일 QT를 위한 쥘리 리더호프의 "기쁨칼럼"
- Gospel Recordings가 지금까지 녹음한 4,800여 개 언어와 방언의 나라별 리스트.
- 긴급히 녹음이 필요한 우선 언어종족 리스트
- 쥘리 리더호프의 생애와 사진자료
- 미전도 종족 현지에서의 선교현장 간증
- ARM에서 진행하는 국제적 훈련학교 안내와 소식

웹 사이트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ARM의 미전도 종족 음반 사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보내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복사해서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로 간직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편에 걸리는 시간이나 장거리 전화의 비용을 절약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RM 홈 페이지를 열어본 사람들은 버튼 하나로 바로 즉시 전자우편(E-Mail)으로 의문사항을 보낼 수 있으며 그 날 내에 답장을 받아볼 수 있다.

ARM의 홈 페이지는 다른 선교단체, 교회 사역의 정보와 연결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컴퓨터를 통해 ARM과 연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웹 주소(왼쪽에 있는 <http://>)를 미전도 종족 사역에 관심있는 가족이나 친구, 교회에 알려줄 수 있다. **ARM**

야생마 선교사

앤

단 리취
(Don Richter)

단 리취는
GR 개척지역
녹음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최근에는
GR 미국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앤 셔우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다. 그녀는 원기왕성한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칠 줄 모르는 사역자였다. 앤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갔던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로 가득찬 인생을 들여보라.

로스엔젤레스는 인디언 종족들의 언어로 복음을 녹음하기 위해 조이와 맥시코로 떠나기 전 훈련을 받던 곳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는 쓸만한 녹음장비도 없는 변변찮은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을 향하여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셨다. 20여 개의 인디언 종족어가 녹음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녀의 2번째 현장녹음 선교여행은 알래스카였다. 조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사역의 불모지인 바위 투성이의 알래스카 고속도로위를 질주했던 것이다. 그들이 현실의 한계를 뚫고 믿음의 차원을 넓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다. 그 결과는 단지 녹음된 언어만이 아니었다. 알래스카의 귀하디 귀한 수많은 언어 종족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GR의 사역은 세계로 팽창해 갔고 앤은 그중에서도 녹음 사역의 대부분을 직접 해낸 “야생마 녹음 선교사”였다. 그와 동시에 조이는 숨겨진 여러 에스키모 종족과 그들의 거주지, 접촉 방법을 찾아내는 연락장교 역할을 했던 것이다. 사역이 일단락 되었을 때 그들은 귀중한 녹음된 테이프 자료로 가득찬 “화살통”(영적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뜻의 비유)을 가지고 LA로 돌아왔다.

1940년대 말, 조이와 앤은 필리핀으로 향했다. 이 선교여행은 GR에 대해 다소나마 이미 알고 있던 국제적인 선교단체와 함께 일하게 된 새로운 모험이었다. 필리핀의 엄청난 필요가 그들의 귀국을 연기시켰고 조이와 앤은 루존(Luzon) 섬, 팔라완(Palawan) 섬, 비사얀(Visayan) 섬, 민다나오(Mindanao) 등에서 92개의 언어로 녹음하게 되었다. 이제 GR은 전

세계적인 사역으로 알려졌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서 “날카롭고 효과적인 화살”을 보유하고 있는 사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음반제작이 본국에서 진행되는 한편, 녹음 사역은 계속적으로 뉴기니아로 뻗어갔다. 앤이 훈련시킨 샌나 발로우라는 젊은 자매가 이번 여행에 조이와 앤과 함께 동행했었다. 이 때 그들은 헤르만 다이크(Herman Dyk)와 알 레이디(Al Rethey)에 의해 GR에서 최초로 발명한 배터리로 작동되는 테이프 녹음기를 가지고 갔었다. 그들은 호주행 비행기가 떠나는 아침이 오기 전에 철야 작업을 하며 녹음기를 완성시킨 그 때를 회상했다. 그 녹음기는 아슬아슬하게 비행기에 실어 보낼 수 있었다!

파푸아 뉴기니아(PNG)는 앤 일행으로서는 일찍이 들어가 보지 못했던 원시지역으로 가득찬 새로운 모험지였다. 8개월 동안 213개의 방언이 취록되었다. 뉴기니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삼총사(조이, 앤, 샌나)는 시드니를 향해 떠났다. 앤은 삼총사들 중에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앤은 언제나 격려하는 사람이었으며 명철한 판단력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후원자도 거의 없던 햇병아리 선교사 시절, 호주에서 그녀가 내게 10 파운드를 주었던 일이 기억난다.

앤의 녹음 사역은 인도로 이어졌다. 인도는 그야말로 언어의 바벨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치지 않는 사역자였고 그녀는 정서적으로, 건강상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앤은 GR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보배였다.

인디아 사역을 마치고 앤은 아프

리카로 녹음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전개된 사역은 마침내 전세계로 이어지게 되었다. 모든 부족들은 자기네 고유의 토속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행진은 케냐로 에디오피아로 수단으로 나이지리아로 이어졌다. 몇년 후 앤은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지금은 결혼해서 페트리(Petrie) 부인이 된 캐시 호프마이어(Kathy Hoffmeyer)와 함께 수백 개의 아프리카 방언을 녹음했다. 사역자로서의 앤의 모습은 전혀 늙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변함없는 사역자였고 그녀의 영혼은 종족들의 영적인 필요에 항상 정조준되어 있었다.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부단히 깨어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앤의 마지막 선교 사역지는 말린 무어(Marlene Muhr)와 동역했던 유럽과 서부 아시아였다. 앤과 말린은 완고하고 강력한 모슬렘의 견고한 진으로 폐쇄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바로 이 “폐쇄” 국가에서 그들은 51개 종족어로 복음을 녹음해 냈던 것이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앤은 미소를 지으며 선포하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GR과 세계선교 역사상 1,6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복음을 녹음하는 사역에 있어서 앤처럼 탁월한 사역자는 없었다. 지금쯤 앤은 천국에서 귀하신 우리 주님께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을 것이다. 반짝이는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그녀는 겸손히 주님의 영접을 받고 있으리라.

안녕, 친애하는 앤이여...

다시 만날 때까지! **ARM**



에쿠아도르에서 샌나와 함께



녹음선교여행 중 짐차 앞에서



방언을 녹음 중인 앤



조이, 샌나 그리고 앤



녹음된 카세트를 듣는 사람들

ARM 사역 현황



선교한국 96

한양대학교에서 6,000여 명의 청년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MISSION KOREA 96대회(96. 8. 5~10)는 참으로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타올랐던 대회였다. 「미전도 종족 음반사역」이라는 주제로 ARM의 정 아브라함 선교사, 네팔 GR의 바나바스 쉬레스타의 강의와 간증에 120여 명의 헌신자들이 참석했다. 두 선교사의 현장 간증과 도전에 그들은 일찍이 알지 못했던 음반사역의 효율성을 알게 되었으며 종족어 카세트가 미전도 종족 선교 사역의 큰 무기임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었다. 젊은 헌신자들을 통해 현장 녹음 선교사로 사역할 자원을 기다린다.

조이토크(JOYTALK)

한국 ARM 대표 조 바나바 장로는 스투어트 밀(호주)과 함께 홍콩을 방문, 새로운 수동식 플레이어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기존 카세트 플레이어 「메신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크기와 무게, 제작가격이 1/3인 새로운 플레이어는 호주 올림픽 스타디움의 의자를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헌신하여 모델을 만들었고 한국의 회사에서 생산·조립하게 된다. 「조이토크」는 전기가 없는 미전도 지역에 종족어 카세트와 함께 보내져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데 쓰일 것이다. 제작 및 배포에 필요한 비용과 과정을 위해 기도하자.



미전도 종족 음반사역 세미나

8월 13일 햇불회관에서 선교한국 96의 일환으로 ARM이 주최하고 AAP, KWMA가 후원하는 미전도 종족 음반사역 세미나가 열렸다. 13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한동선교국장 강승삼 목사, 미국 GR 훈련 책임자인 댄 릴리슨, 정 아브라함, 바나바스 쉬레스타 등의 강의 진행에 따라 AD2000을 앞두고 1700종족을 입양하자는 여호수아 프로젝트 2000과 연계하여 남은 언어 종족을 정복하는 현장 녹음 선교사를 일으킬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현장 녹음 선교사를 일으키기 위해 내년 3월에 네팔에서 현장녹음훈련학교(Field Recording Training School)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 ARM

95년 5월, 한국에서 열린 GCOWE 대회를 계기로 미전도 종족에 한국교회의 선교 초점이 고정되면서 ARM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음반선교회 한국지부가 출범했다. Audio Recordings Mission은 선교사의 활동이 제한된 접근제한지역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최우선을 두어 미전도 종족어 현장녹음 사역, 교회화 연합된 단기 음반배포 여행을 추진하며, 미전도지역 전문 녹음선교사를 양성하는 현장녹음훈련학교(FRTS)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전도 종족의 실상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영적전쟁에 동참케 하기 위해 오디오, 비디오, 서적 등 현대문명의 첨단 장비를 사용한 전문화된 Media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녹음훈련학교(FRTS)

FRTS는 남은 4000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종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자는 TARGET 4000 프로젝트를 성취할 140명의 현장녹음선교사를 일으키기 위해 전 세계에 세워진 10주 과정의 미전도종족사역 훈련학교이다. FRTS는 강의실에서만의 지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미전도 종족 속에서의 실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경험케 한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며 미국 GR과 한국 ARM이 주관하는 FRTS는 1997년 3월에 1기, 9월에 2기가 시작된다. 영어 훈련이 필요한 헌신자들을 위해 Language Course도 제공하고 있다. FRTS를 마친 현장녹음선교사들은 네팔, 중국, 호주, 멕시코, 인도,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의 미전도 종족 집단 속에 들어가 사역하게 된다.

미전도 종족 Media 사역

ARM은 미전도종족선교에 한국교회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비디오, 오디오, 필름,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한 Media 사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Jesus Film 프로젝트와 연합하여 예수 영화를 종족어로 녹음할 50개 팀을 일으키는 연합 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디오 종족 프로파일을 제작하고, 입체적으로 현지 부족의 영적 상황을 알리고 영적 부흥과 선교운동을 촉구하는 비디오를 번역, 제작하고 있다. 영상, 연출, 음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사역팀이 일어난다면 단기 비디오 아웃리치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Media 사역 단체와 협력하여 미전도 종족 현장 미디어 사역 학교도 검토중이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지난 여름에 중국내 소수민족 중 몇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복음메세지를 취록하기 위하여 중국으로의 첫 번째 여행을 떠났다. 중국의 다양한 언어 및 방언으로 복음메세지를 취록할 현장녹음선교사(Recordist)로 부름을 받은 후 처음 떠나는 여정이라 기대가 자못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봄에 홍콩에 이주한 이후 가정의 정착 문제가 정리되기도 전에 떠나는 여행인데다 여행일정을 준비하기로 했던 K선교사가 타국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취록여행을 다녀 올 수밖에 없

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여정을 출발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분이어서 그분이 약속하신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도록 고국에서 기도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① 소수민족 사역자를 연결시켜주심: 우리가 갖고 있던 유일한 정보는 한 사역자의 전화번호 밖에 없었다. ○○성에 도착하여 전화를 하니 그가 반갑게 맞이해 준다. 그는 그 인근 지역의 소수 민족의 사역을 돕는 자였다. 그가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2-3개의 언어를 레코딩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하고 그를 통해 3개의 언어로 복음메세지를 녹음할 수 있었다.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의 수는 ○○언어가 150만 명 이상, ○○언어 170만 명 이상 그리고 ○○언어는 15만 명 정도가 되었다.

② 만다린 스크립트를 예비해 주심: 하나님은 한 형제를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의 요청이 전혀 없었지만 작년에 네팔 현장녹음 팀이 이곳에 왔을 때 한 형제가 영어로 된 복음메세지가 들어 있는 대본(script)을 복사해 그것을 1년 동안 자기의 제자들을 시켜 중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디스켓을 미국의 Gospel Recordings에 보내 준 것을 내가 홍콩에 도착한 후에 받았지만 만다린 문자로 된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시키지 못했었다. 다른 선교단체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디스켓을 그대로 중국에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이 곳에서 사역하는 또 다른 사역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소수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자이었는데 그가 소프트 웨어를



- 정 아브라함 -
Abraham Jeong은
홍콩에 거주하며
중국의 미전도 종족을
TARGETING 하는
현장녹음사역을
하고 있다.

었다.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다.

하루는 말씀을 읽는 중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얻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 22:8)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이시며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속에 평강을 찾게 되었다. 일정에 따라 나를 돕기 위해 네팔에서 온 바나바 형제(GR 책임자)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

가지고 있었고 마침내 우리의 만다린 script를 프린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대본의 만다린 번역은 그 당시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만일 만다린 script가 없었다면 영어로 된 대본을 통해 영어를 만다린으로 만다린을 소수민족 언어로 한 문장 한 문장 번역하면서 녹음해야 하는데(sentence by sentence:일반적인 녹음방법) 이렇게 되면 시간이 몇 배나 더 걸릴 것이 뻔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 한 형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미 필요한 대본의 두 세배 되는 분량을 만다린 언어로 번역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 번역본이 프린트 되어 녹음 일정 바로 전날에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던 것이다.

③ 녹음할 스튜디오를 예비해 주심: 녹음 사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는 녹음할 스튜디오이다. 중국과 같은 복음의 제한 국가에서는 녹음할 스튜디오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스튜디오라고 해서 전문시설을 갖춘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없었다. 우리는 가정집 중에서 소음이 비교적 적은 곳을 택해서 최대한 소음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면서 녹음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도착 소식을 들은 한 형제가 우리에게 자기의 아파트를 내 주었다.

마침 그가 한 달 정도 출타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처음 보았지만 우리에게 자기 아파트를 내어 준 것이다. 맨 꼭대기 층으로 계단을 사이에 둔 맞은 편 집이 비어있는 곳이라서 녹음을 방해할 소음뿐 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고루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려임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집에 입주한 이튿날 그 집의 형제는 떠나고 그날 밤 첫 언어조력자가 도착하였던 것이다.

④ 언어 조력자(Language

Helper)의 예비하심: 녹음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이중 언어 사용자(만다린과 소수 민족 언어 사용자) 이면서 좋은 음성을 가진 사람을 구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크리스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언어조력자로서 하나님은 세 형제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형제들은 각 소수 민족의 몇 안되는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의 리더들이었다. 이들은 만다린을 다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다린 언어로 된 script를 그대로 읽으면서 녹음해 나갈 수가 있었다. 다른 때 같으면 3-4일 심지어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 이들에게는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전체 script의 녹음이 끝날 수 있었다. 그래서 3개의 소수 민족언어로 녹음하는데 걸린 시간이 10일에 불과했다. 한 사람이 보통 3일씩 우리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녹음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왔다가면 다른 언어조력자가 도착하고 또 한 사람이 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정확하게 배분하여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다. 이들은 녹음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있었던 기간이 집중적인 제자 양육 기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녹음을 시작하기 전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며 녹음 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보며 또한 이 Gospel Recordings 사역이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족한 종들을 통한 이 사역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곤 하였다.

⑤ 많은 접촉점을 예비해 주심: 세 종류의 언어로 된 복음메세지를 녹음하고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다음 사역을 위한 정보

조사 차원이었다. 우리가 만난 많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직도 복음화 되지 못하고 그들의 말로 된 성경도 없는 대다수의 소수 언어 사용 종족에 대한 이 사역의 필요를 깨달았다. 몇천 명으로 부터 몇 백만 명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들의 말로 된 복음의 매체가 없는 소수 민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이곳 중국의 현실인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10여개의 소수 민족 및 미전도 종족의 접촉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여행의 큰 수확이었다.

이제 ○월 ○일 정에 두 번째 현장 녹음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번에 가는 여정을 통해서 또 3-5개의 언어 및 방언이 레코딩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음을 돕는 소수민족 사역자와 언어 조력자의 담대함을 위해서 그리고 녹음할 스튜디오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여행중 안전과 건강과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줄곧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행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능 함께 하심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케됨과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RM

1996년 늦은 가을에



● ● ● ● ● ● ● ● ●

이제 Male(말리) 방언과 Rendille(렌딜레)방언 녹음 음반의 편집과 프로그래밍이 끝나면 이 카세트는 이 부족들에게 보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 문맹인 이 종족들에게 오디오 도구를 사용하여 주의 말씀을 전파하시도록 기도하자. **ARM**

호두 껍질이 깨어지다



필립 투투
Phillip Tutu

필립 투투는
가나 GR 책임자이며
페페사(Pepesa)는
서부 가나의 지명이
다.

우리는 어제 오후 티브레브(Teibrebe) 탄광촌으로 가서 GR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찾았다. 지난번에 우리가 페페사(Pepesa)에서 녹음한 새로운 메시지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큰 스피커로 틀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에 너무나 놀라와 했다. 몇분도 채 안되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들었다. 우리는 그들의 토속어로 된 영화를 보여주고, 노방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초청했다. 그날 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다음날 아침, 여러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 또다른

마을로 떠났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녹음했다. 들판에서 골판지로 된 축음기에 레코드를 틀던 판티(Fanti)종족 사람들은 깜짝 놀라와 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것임에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마을사람들이 “잘 안깨어지는 호두껍질” 같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그날 밤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12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름에 응답했다.

그 다음 날 본사소(Bonsaso)에서는 마을 추장이 테이프에서 울려 나오는 메시지에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100개 이상의 카세트를 배포했다. 저녁에 축구 경기장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 그날 밤 도둑들이 자동차를 부수고 들어와 우리의 대형 스피커를 훔쳐간 사건으로 추장은 당황해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로 더 비싼 장비들이 건드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알았다.

마술(Cult)에 의해 지배당하던 다른 마을에서는 성서적인 교회 개척에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었다. 그러나 비디오를 보여주고 결신 초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백을 했으며, 25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다.

페페사 지역에서, 560여개의 카세트가 인쇄물과 함께 사용되었다. 1200여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주님을 믿게 되었으며, 수백명의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여 등록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지역의 영적 장애물을 완전히 돌파하신 것을 느꼈다.우리는 최근에 언어가 녹음되어 배포 준비에 있는 즈위라(Jwira) 지역에서도 유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한다. **AAM**

국내 신문 및 잡지에 소개된 ARM

國民日報 96년 10월 23일

글을 전혀 모르는 소수부족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같은 소박한 문제 제기를 통해 탄생한 복음음반선교회(ARM)는 여러 선교단체 중 다소 독특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성경번역선교회가 문맹부족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고 성경을 그 문자로 번역하는 일을 한다면 복음음반선교회는 소수민족의 말로 성경 및 복음의 기초지식들을 테이프로 담아 미전도종족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복음음반선교회는 39년 운두라스에서 선교사역을 하다 병을 얻어 미국 LA로 돌아온 조이 리더호프라는 한 여선교사로부터 시작됐다. 그녀는 LA에서 기도 가운데 운두라스 산지족을 위해 스페인어로 된 최초의 복음음반을 녹음해 보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리더호프 선교사의 소박한 소망은 57년이 지난 현재 4천8백여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복음음반이 만들어지는 커다란 결실을 맺었다. 겨자씨같은 그녀의 믿음이 산을 움직인 것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30여 개의 지부가 있으며 2백여 명이 복음음반사역을 전담하고 있다.

한국복음음반선교회는 호주에서 이같은 선교활동을 접한 조관호 장로(49)에 의해 95년부터 정식으로 시작됐다. 조 장로는 이전부터 'TAPE MISSION 하영'이란 단체를 만들어 공산권과 이슬람권 등 10여 언어권에 복음을 실은 테이프를 보내는 사역을 해오고 있었다. 조 장로는 전세계의 언어와 방언들을 8천 개로 볼 때 아직도 절반인 4천 개 가까운 언어종족들이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2000년까지 이 사역을 담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복음음반선교회의 복음음반제작 작업은 철저하게 현지 부족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2,3명의 '언어중재인'을 거쳐 부족인들이 복음을 녹음한다. 팔라우 제도의 니그리토 부족언어로 녹음할 때는 4개의 언어와 방언을 거쳐 녹음 작업이 완료되기도 했다.

녹음된 테이프는 자체 제작된 수동식 녹음기를 통해 현지 부족들에게 전해진다. 수동녹음기를 손으로 직접 돌리며 자신들의 언어로 녹음된 복음을 청취하는 원주민들을 통해 한 지역이 복음화되는 '기적'들이 지난 56년간 도처에서 일어났다.

한국 복음음반선교회는 현재 4천 개의 부족언어를 복음음반에 담아 전파하는 'TAGET 4000'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금세기 말까지 이 운동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최소 70개팀의 '취록선교사'들이 필요하다.

2명이 한팀인 취록선교사들은 현지 언어조력자들을 통해 부족언어로 복음을 취록하게 된다. 일단 취록하게 된 음반은 '배포선교사'들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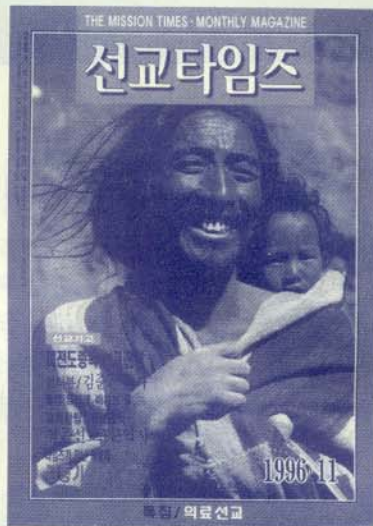
조 장로는 취록사역과 더불어 배포사역도 중요하다는 미전도종족을 입양한 교회들과 단기선교팀들을 통해 배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전도지역으로 단기선교를 나가는 팀들이 현지어 복음음반을 가져가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 ARM은 97년 3월 까지 기존의 수동식 녹음기보다 훨씬 가벼운 형태의 수동녹음기인 '조이 토크'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사는 모슬렘 유목민인 웨다브족속이나 네팔의 손하족과 타이족들은 복음이 담긴 녹음 테이프 하나로 복음화된 종족들이다. 콜라병이 아니라 복음 실린 축음기를 듣는 부시맨들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한국 ARM 관계자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는다'는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며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음반사역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했다(408-6969).

- 전 내용 게재 -

선교타임즈 96년 11월호



<기사내용 중 일부>

「ARM은 아직도 남아있는 4000여개의 미전도 언어종족집단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음반을 녹음할 현장녹음 사역자를 한국에서 일으킬 꿈을 갖고 있다. 한국을 일으켜 잠자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도록 ARM은 세계선교를 향하여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조 장로는 향후 2년내 140명 선교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있다.

한 선교팀(2명)이 1년에 15개의 언어를 취록할 수 있다. 140명이면 70팀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을 통하여 1년에 1,050개 취록이 가능하며, 4년이 지나면 4,200개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 녹음 선교 사역은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매일의 필요를 채워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방 문화속에 살며 사역하고, 미전도종족을 찾아 외딴 지역으로 여행하며 복음의 메세지를 담은 카세트를 부족에게 전달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으면서, 고품질의 녹음장비와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한 녹음 선교사 팀들은 그곳 현지 통역자의 도움으로 구원의 메세지를 테이프에 담는 것이다.」

중국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A국 ○○선교회 ○○○ 목사님과 ○○○ 변방에 갔다 왔습니다.

이슬람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너무나 넓고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종교란 이슬람교밖에 없는 곳인데도 지금은 교회가 섰고 신도들도 천 명이 넘는다고 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어찌나 순진하고 깨끗한지 복음을 전해 듣는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희들은 못 가보았지만 더 깊이 들어간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으며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 가정 교회가 있어서 같이 예배도 드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중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도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현재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되지만 이어나갈 분이 없어서 고민한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슬람 귀신들의 영이 얼마나 센지 목사님은 비행기에서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프고 감기에 걸렸고 입과 코가 다 부르트고 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의 Power가 이렇게 센 줄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대함도 더더욱 알았구요.

저는 지금 제가 알고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옆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말하지 않고서는 참지 못해요. 이번에도 가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의 영어 수준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영어를 제가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척척 통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의 입을 사용하셨어요. ○○대학 영문과를 나온 사람도, 런던에서 얼마 동안 유학하고 나온 사람도 모르는 성경을 비롯한 모든 말을 너무나 잘 아니깐 모두들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으로 유학갔다 왔다고 할 정도였어요. 목사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큰 기쁨을 이야기 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깊이 파묻어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또 한번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찬송가 테이프가 적고 또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아주 적습니다. 신도들은 찬송가 테이프가 없고 가정 교회도 전혀 없으며 찬송가 책도 너무너무 적어요. (중국말 찬송을 말합니다.)

전번에 보내온 성경책과 찬송가 테이프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단속이 심한 때에 그렇게 먼 곳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 귀한 책을 받고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많이 긴장되어졌습니다. 8월, 9월 2개월간은 교회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가정 교회가 거의 다 해체되었고 피해를 입은 외국인 선교사님도 몇분 된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하지 않고서는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아무일도 없이 안전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너무 사랑하시나봐요.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기운이 납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ARM과 한국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팔 현장녹음훈련학교

Field Recording Training School



네팔 카투만두 FRTS 학교 전경

미국 Gospel Recordings와 한국 ARIM은 AD 2000년까지

모든 종족들로 복음을 듣게 하자는 TARGET 40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현장 녹음 선교사를 일으키는 일환으로 현장녹음훈련학교(FRTS)를 시작한다.

현장 녹음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들어보지 못하고 선교사의 사역이 전혀 없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녹음, 그들의 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이다.

개척 선교 지역을 여행하며 1년에 15여 개의 종족으로 녹음하는 사역으로 실제적인 영적 전쟁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원하는 헌신자들을 이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초대한다.

● 어디서?

히말라야 산맥의 네팔 카트만두

● 언제?

• 제1기 FRTS

1997.3.3.(월)~5.9.(금)

• 제2기 FRTS

1997.9.26.(월)~12.5.(금)

● 기간?

10주(8주 강의,

2주 현장훈련 Outreach)

● 현장녹음선교사란?

복음음반선교회의 현장녹음선교사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 고유의 마음의 언어(Heart Language: 모국어)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현장녹음선교사는 각 종족어로 복음을 녹음하기 위해 종족 집단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까이 여행을 떠납니다. 현장녹음선교사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 기초가 다져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하며 육적으로도 적합해야 합니다.

● FRTS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음반사역의 역사, 현장녹음 기술, 음향기술, 문화 정탐, 타문화권 커

뮤니케이션, 구두적 의사소통, 언어 정탐, 종교 정탐, 성경번역, 컴퓨터 편집, 언어학 등의 사역훈련과 경건의 시간, 찬양과 중보기도, 사역 성품, 재정, 기쁨의 정신, 선교적 삶, 영적전쟁, 스트레스 관리 등의 영성 훈련을 병행합니다.

●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FRTS의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각 FRTS가 시작되기 4주 전에 언어 코스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영어권 스텝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네팔인 가정에 거거하며 실제적인 영어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영어 연수 코스가 언제 시작됩니까?

• 제1기

97.2.3.(월)~97.2.28.(금)

• 제2기

97.9.1.(월)~97.9.26.(금)

●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가족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훈련학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의한 하나님의 학교



● 그곳에서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1인당 영어 연수비 : US\$ 300
- 기혼부부 영어 연수비 : US\$ 500
- 자녀 1인당 : US\$ 100

- 1인당 FRTS 비용 : US\$ 500
- 기혼부부 FRTS 비용 : US\$ 800
- 자녀 1인당 : US\$ 200

- 왕복항공비 : 70여만원



※ 참고 : 상기 비용은 네팔에서의 숙식과 교통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강사들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섬깁니다. 훈련장소는 한국 ARM에서 제공합니다.



● FRTS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인 훈련은 당신이 선임 현장녹음선교사와 함께 몇개월 동안 실제적인 녹음사역을 마칠 때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장훈련" (On-the-Job Training)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한 기도와 조사 후, 당신은 선임 녹음사역자가 일하고 있는 나라들 중 한 곳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현장녹음 지역은 네팔, 중국(홍콩을 통해서), 호주, 멕시코, 인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미전도 종족집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RM**



ARM 추천 및 신간소개

미전도종족 선교시리즈 I

그들의 말로 듣게 하라



전기도 없이
건전지도 없이,
스피커도 없이
오직 나뭇가지
하나로 소리가
나는 축음기!
이 축음기가 선
교사의 발길이
달지 않는 아마
존과 아프리카
와 아시아의 미
전도 족속을 찾
아 그들의 언어
로 하나님의 말
씀을 전파한다.

- 예수전도단
- 4,000원

조이 의 믿음과 순종의 파란만장한 모험 일대기!

테이프

위축된 자아의 회복



우울증과 거절
감, 자기학대와
부정적인 자아상
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향한 하
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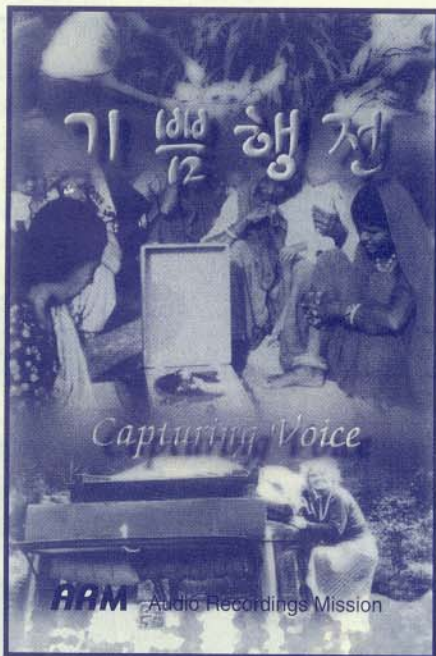
- I. 자기신분회복
- II. 자기성품회
- III. 자기가능성회복

중생(거듭남)
ARM에서 제작한
(위축된 자아의 회
복)은 불신자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도
구가 되며 내면치유
를 필요로 하는 크
리스찬에게도 도움
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만다린어로
제작중.

미전도종족 선교시리즈 II

기쁨 행진

4767개 부족어를 음반에 담은 한 여인의 믿음과 열정



미전도 종족을 위한 음반사역(Gospel Recordings)은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조이 리더호프라고 하는 한 병든 선교사의 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39년
혼두라스에 있는 한 노파를 위해 스페인어로 최초의 복음음반이 만들어진 이
후, 위대한 믿음과 기쁨의 정신으로 지구의 땅끝까지 나아가 지금은 전세계 언
어의 반이 넘는 4,767개의 종족어와 방언으로 오디오 음반이 만들어졌다.
그녀는 비행기로, 배로, 지프로, 카누로 때로는 히말라야 산을 넘어 복음음반
이 필요한 종족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조이 리더호프의 이 놀라운 모험과
지칠 줄 모르는 행진은 그녀가 하나님 품에 안긴 지금도 Gospel
Recordings(복음음반선교회)라는 국제적인 사역으로 30개국 이상에서 활발
하게 이어지고 있다. <예수전도단 출간>

ARM에서 동역할 간사를 찾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영어나 컴퓨터에 능통하고, 평신도로서 30세 전
후의 사람을 찾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ARM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408-6959)

복음음반선교회(ARM)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지체로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구
원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 갈 수 없는 곳, 선교사가 직접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들의 말로 녹음된 복음음반을 제작, 배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명이 주는 각종 첨단 장비를 사용한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전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
음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